

지역 소식통

완주군 삼례 금와습지 생태환경개선 사업 추진

완주군이 삼례 금와습지 생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2024년도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일환으로 금개구리 서식지 확대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 활용을 위해 금와습지 2단계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남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일부를 반환해 훼손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하는 사업으로 전역 국고로 지원된다.

1단계 사업은 습지정비와 관할데크, 안내판 정비 등으로 12월에 완료했다. 2단계에서는 멸종위기종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삼례 금와습지공원의 생태환경을 개선해 생태탐방과 휴식, 교육적 생태명사로 조성할 계획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제 요촌동 유희공간 '요촌쉼터'로 재탄생

김제시(시장 정성주) 요촌동 동서로 상점가 구간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공간이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요촌쉼터(동서로)'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곳은 동서로(터미널~구산사거리) 신당동떡볶이 집 옆에 있는 유희공간으로 버려진 쓰레기와 잡초가 무성한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심 경관을 해치고 안전상의 문제도 안고 있는 장소였다.

올해 9월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화동길 상인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요촌쉼터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재발적으로 문제적 장소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쓰레기 치우기부터 1개월여 기간 생업과 병행하여 완성한 의미있는 쉼터이다.

이번에 조성된 '요촌쉼터(동서로)'는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의 소중한 쉼터 기능 외에도 버스킹, 플라마켓, 작은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AI 추가확산 방지 '사활'

정 시장, 긴급 대책회의 살처분 역학조사 등 총력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부는 용지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속 발생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15일 간부공무원과 10개 협업부서장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고병원성 AI 방역 조치 상황과 분야별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제시는 AI 의심축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해 현대식 랜더링 방식으로 신속하게 살처분하였으며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방역 조치와 정밀검사를 완료했다.

또한 방역차량 18대를 운영하여 철새도래지를 일제 소독하고 방역초소 21개소(거점 3, 소독통제 9, 대규모농장 9)를 설치하여 24시간 가동중이며 용지면 밀집단지 산란계 농가 알 전체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성주 김제시장이 간부공무원과 10개 협업부서장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를 출하 금지하는 등 AI 확산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하며 총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장의 소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농장별로 매일 AI 방역수칙 지도 점검과 가금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미발생지역 감열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시는 도내에서 2번째로 가금류 사육(164개 농장 785천수)이 많은 지역으로 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정되어 있던 주요 행사들을 모두 취소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근대5종 실업팀 창단

최종 예산안 통과...남녀 혼성으로 감독·선수 등 약 7명 전방

완주군이 근대5종 실업팀(직장운동 경기부)을 창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체육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15일 전라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완주군이 근대5종 실업팀을 내년도에 창단한다.

지난 14일 근대5종팀 창단에 따른 최종 예산안이 통과됐으며 이후 관련 규정 개정 및 지도자 모집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근대5종 실업팀을 창단할 계획이라는 것이 완주군의 설명이다.

창단되는 근대5종팀은 남녀 혼성으로 구성 될 예정이며 감독(지도자)과 선수 등 약 7명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실업팀 창단은 체육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유희대 완주군수와 직장운동

부 창단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던 정강선 전라북도 체육회장, 이문순 전라북도 근대5종 연맹 회장의 노력이 컸다는 후문이다.

실제 유희대 완주군수는 완주군을 체육의 메카로 발돋움 시키기위해 스포츠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데 올해에만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등 크고·작은 대회와 전지훈련단 유치 등을 통해 45억 원 가까운 경제적 효과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근대5종팀 창단으로 선수들은 진로 걱정이 다소나마 해결됐고,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전북 근대5종의 경우 완주에 있는 전북 체육중·고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실업팀 하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배출하는 등 맹활약하고 있다.

또 지난달 열린 근대5종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전북체고 출신인 김유빈과 김예나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게 돼,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대회에서 전북 체육의 위상을 알리게 된다.

전북근대5종연맹 이문순 회장은 "전북의 우수한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고향에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선수로 활동하게 돼 기쁘고, 체육발전을 위해 연맹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체육회도 팀 창단을 한 완주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군과 협업체계를 돈독히 해 지역과 체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근대5종팀 창단을 계기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5일 시정실에서 미래병원(원장 권혁일)과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 위탁 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미래병원이 최종 선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와 미래병원은 협약으로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 정신건강 상담·교육과 인식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15일 전북한우협동조합이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한우 285Kg을 기탁했다.

김제 '희망2024 나눔캠페인' 동참

전북한우협동조합, 관내 저소득 가정에 한우 285Kg 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5일 전북한우협동조합(조합장 김희동)이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한우 285Kg(1천만원 상당)을 기탁하여 나눔을 통해 사랑의 온도를 올리는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영양가득 한우를 기부해 주신 전북한우협동조합에 감사드리고 기부해 주신 한우는 조합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희동 조합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져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돈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편 전북한우협동조합은 2001년 설립 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총체보리한우 사양프로그램을 기술이전 받아 친환경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고 있으며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착한가격에 맛있는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따스한 온정'

(주)제이앤에스엔지니어링,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5일 (주)제이앤에스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경석)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백만원을 드림스타트팀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경석 J&S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연말을 앞두고 가장 먼저 아이들이 생각이 났다"며 "지역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속에서 행복하게 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제이앤에스엔지니어링은 관내 만경을 만경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전북 권내 유일한 마구조 제조기업으로 지난해에도 김제시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 330만원을 기탁하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 주시는 J&S엔지니어링 이경석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석 대표는 김제지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기탁은 수년 동안 지역사회와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김제시에만 세 번째 기부를 실천하여 연말 연시 훈훈함을 더하였다.

한편 이경석 대표는 2021년 김제사랑 장학금 200만원과 모범다자녀 후원금 300만원을 기부하였고, 2022년도는 김제시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 330만원, 2023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과 다자녀가정매정사업으로 120만원을 기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날 기탁한 성금 500만원 중 330만원은 관내 지역아동센터(11개소)에 개소당 30만원씩 난방비로 쓰일 예정이며 170만원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등 14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